

AI 네이티브 방송 엔지니어 로드맵
불변의 기초에서 변혁의 실전까지



Part 1
AI, 방송의 판을 바꾸다

1화 AI가 바꾸는 방송의 미래 : 엔지니어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장비 전문가에서 AI 솔루션 아키텍트로

글. 강자원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KBS MNC(Media Network Center)팀



AI 기술이 방송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방송 엔지니어의 역할은 하드웨어 장비의 유지보수와 운영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AI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통합하는 AI 솔루션 아키텍트로서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방송 엔지니어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곧장 현장에 녹여내고자, 앞으로 총 12회에 걸쳐 『AI 네이티브 방송 엔지니어 로드맵 - 불변의 기초에서 변혁의 실전까지』라는 테마로 연재 칼럼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차별로 방송 산업 내 AI 기술의 본질, 데이터와 워크플로우의 혁신, 그리고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실무 전략을 다각도로 짚어볼까한다.

이번 연재는 Part 1부터 Part 3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AI가 방송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서 시작해 ‘콘텐츠의 창조와 관리’, 그리고 ‘시스템의 보호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AI 네이티브 시대의 방송 엔지니어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 여정과 실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각 회차는 현실 현장의 고민을 토대로 기획되어 ‘AI는 방송 엔지니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과제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안내가 될 것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 전통적 방송기술 전문가에서 미래지향적 AI 솔루션 아키텍트로 성장하는 과정의 핵심 지식과 실무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변화의 서막:

왜 방송 엔지니어에게 AI가 중요한가?

심야의 방송국 주조정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뿔어내는 불빛만이 공간을 채운다. 엔지니어는 약속된 신호와 데이터가 문제없이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밤새도록 화면의 숫자와 파형을 응시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빨간 불(에러)과 알람’에 대한 긴장감, 장애 발생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수동적인 품질 검사(QC)와 인제스트(ingest) 관리. 이는 수십 년간 방송 엔지니어의 전문성이자 동시에 숙명과도 같은 고충이었다. 이처럼 엔지니어의 역할이 장애 발생 후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Reactive)’에 머물러 있던 전통적인 워크플로우는 이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방송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시작한다.

AI 네이티브 방송 엔지니어 로드맵

불면의 기초에서 변혁의 실천까지

1 Part 1: AI, 방송의 판을 바꾸다

- 1회 차 : AI가 바꾸는 방송의 미래 : 엔지니어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2회 차 : 방송 엔지니어를 위한 AI 핵심 개념 :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생성형 AI
- 3회 차 : AI프로젝트의 첫 단추 : ‘음모’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기술

2 Part 2: AI, 콘텐츠를 창조하고 관리하다

- 4회 차 : AI의 눈, 영상을 창조하다 - 지능형 영상 분석과 제작 자동화
- 5회 차 : AI의 입, 소리를 지배하다 - 지능형 음성 인식, 분석, 생성
- 6회 차 : AI 큐레이터의 등장 - 초개인화 추천과 광고의 공학
- 7회 차 : 생성형 AI, 방송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

3 Part 3: AI, 시스템을 보호하고 최적화하다

- 8회 차 : AI관제탑 - 무결점 방송을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과 장애 예측
- 9회 차 : AI네트워크 - 스마트 전송망과 CDN최적화
- 10회 차 : 클라우드, AI를 위한 무한의 작업실 - AI미디어 서비스와 MLOps
- 11회 차 : 엔지니어의 AI윤리 - 평형성, 디페이크, 그리고 기술적 책임
- 12회 차 : AI 네이티브 방송 엔지니어 - 최종 로드맵과 미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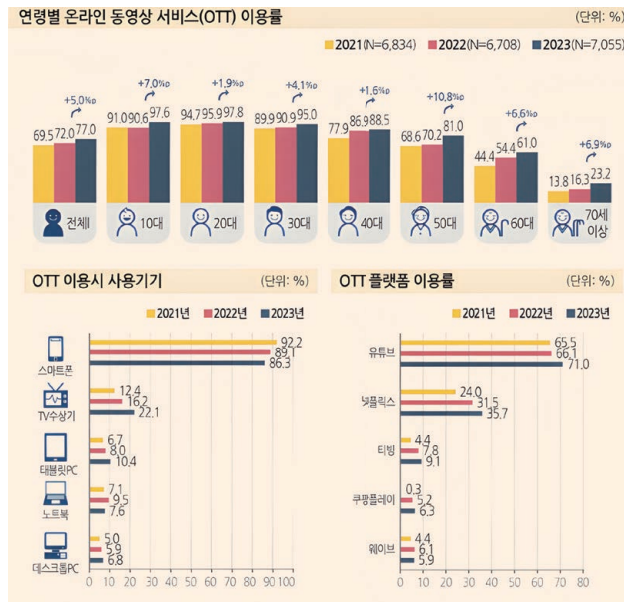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OTT 이용률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첫째,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같은 프로그램을 보던 선형적(Linear) 방송 시대는 저물고,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OTT(Over-The-Top) 시대가 주류가 되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7%에 달하며, 특히 20~30대에서는 97%를 넘어서는 등 이미 핵심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방송사가 관리해야 할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수많은 버전을 각기 다른 플랫폼에 맞게 변환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은 더는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둘째,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가 미디어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시청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다음에 볼 콘텐츠를 제시한다. 이제 시청자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취향을 완벽히 이해하는 서비스를 기대한다. 이러한 개인화 추천은 방대한 시청 데이터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야만 가능하며, 이는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이터 과학과 AI’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무한 경쟁 속

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고품질 콘텐츠를 더 빠르게 제작해야 하는 과제는 모든 방송사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 모든 도전 과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답이 바로 AI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AI는 반복적인 QC 작업을 자동화하여 엔지니어가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징후를 예측하는 ‘Predictive Maintenance’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영상 속 객체와 인물,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방대한 아카이브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찾아주는 지능형 메타데이터를 생성한다.

구분	기획 단계	제작 단계	서비스 단계
지상파(텔레비전)	9.2%	14.4%	18.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8%	4.4%	6.5%
인터넷텔레비전	0.0%	3.3%	3.3%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8.8%	10.5%	0.0%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8%	12.7%	1.6%
합 계	11.1%	9.4%	6.9%

표 1. 방송사업자별 방송작품 전 단계 인공지능 활용 비중 / 출처 : 과기정통부(2024. 11. 28.), 방송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활용현황 보도자료

결론적으로, 방송 엔지니어에게 AI는 ‘알아두면 좋은 기술’이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 되었다. 과거에는 신호와 장비의 물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AI 모델을 활용해 워크플로우 전체를 최적화하는 능력이 엔지니어의 새로운 가치를 결정한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올라타야만 한다.

역할의 재정의: ‘장비 전문가’ vs ‘AI 솔루션 아키텍트’

AI 시대의 도래는 방송 엔지니어에게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의 요구한다. 과거의 ‘장비 전문가(Equipment Specialist)’가 방송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정교한 부품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면, 미래의 엔지니어는 ‘AI 솔루션 아키텍트(AI Solution Architect)’로서 전체 시스템의 두뇌와 신경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두 역할의 가장 큰 차이는 관점과 대상에서 비롯된다. 장비 전문가는 특정 장비, 즉 카메라, 스위치, 송신기 등의 개별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들의 관심은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집중된다. 반면,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과 전체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콘텐츠 제작부터 송출까지의 전 과정을 더 빠르고, 더 지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로 향한다. 이 두 역할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 표를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장비 전문가	AI 솔루션 아키텍트
 주요 기술: 신호 처리, 장비 운용, 유지보수  문제 해결: 장애 발생 시 대응 (Reactive)  사고방식: 하드웨어 중심, 개별 장비 최적화	 주요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Python, API  문제 해결: 장애 발생 전 예측 (Proactive)  사고방식: 소프트웨어/데이터 중심, 전체 워크플로우 설계

표 2. 장비 전문가 vs AI 솔루션 아키텍트

표에서 볼 수 있듯, AI 솔루션 아키텍트의 역량은 전통적인 방송기술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한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다루던 엔지니어가 코딩을 배우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개별 장비의 최적화를 넘어,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AI를 활용해 전체 미디어 공급망(Media Supply Chain)을 혁신하는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미래 엿보기: AI 솔루션 아키텍트가 해결할 현장의 문제들

그렇다면 AI 솔루션 아키텍트로 거듭난 방송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미래 방송 현장에서 마주할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시나리오 1. 콘텐츠 제작의 혁신 - 지능형 스포츠 중계

수십 대의 카메라가 쏟아내는 테니스 경기 영상 속에서 PD와 편집자는 경기 전체를 검토하며 결정적인 득점 장면과 하이라이트를 찾아낸다. 이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된 작업이다. 이때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이 워크플로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경기 영상 데이터를 컴퓨터 비전 AI가 분석하여 선수의 움직임, 공의 궤적, 서브 속도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스(Ace)’, ‘폴트(Fault)’, ‘랠리(Rally)’와 같은 이벤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타임코드를 포함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편집자는 방송 종료와 거의 동시에 주요 장면 클립을 확보하고, 후반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더 창의적인 편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지능형 테니스 스포츠 중계 사례 / 출처 : Playsight 사의 Sports AI and Automated Production Technology

시나리오 2. 방송 시스템의 안정화 - 사전 장애 예측 시스템

“장애는 터진 뒤에 막는다”라는 말은 과거의 유물이 된다.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장비(송신기,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등)에서 쏟아지는 로그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AI가 학습하도록 설계한다. AI 모델은 평소에는 발견하기 힘든 미세한 이상 신호나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 장비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3일 후 2번 송신기의 냉각팬 장애 확률 85%’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엔지니어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더 이상 장애 발생 후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무중단 방송의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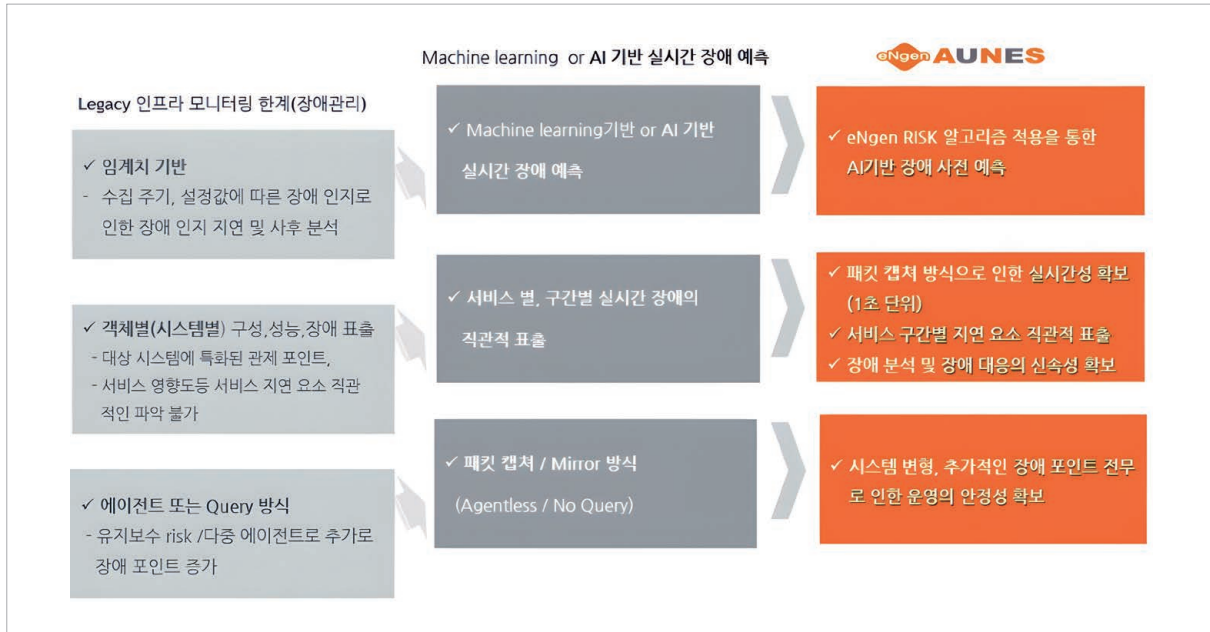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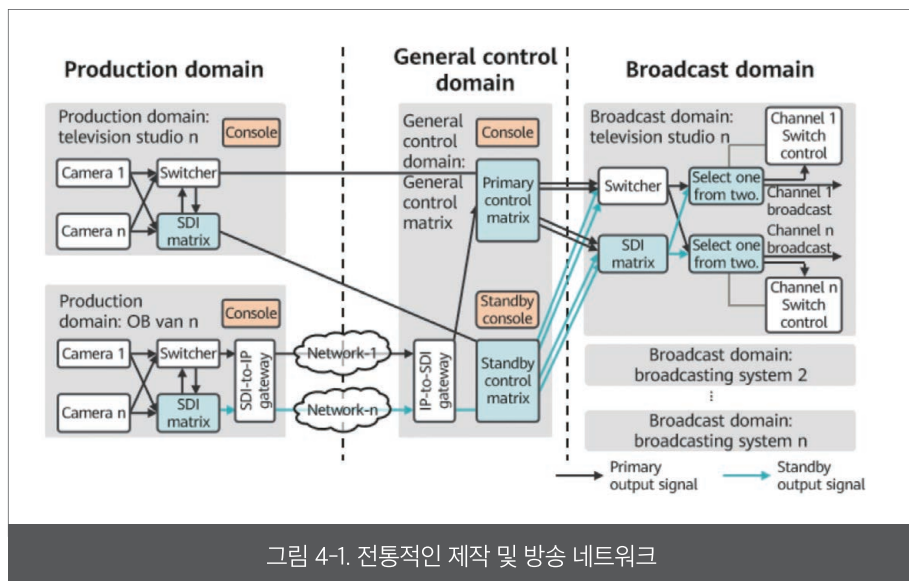
그림 3. 실시간 장애 예측, 진단 시스템 / 출처 : ㈜엔시큐어 eNgenAUNES

시나리오 3. IP 방송 네트워크의 지능화 - 정적 라우팅에서 동적 제어로

과거의 방송 시스템은 SDI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모든 신호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이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거나 신호 경로를 변경하려면 복잡한 재결선 작업이 필요한 경직된 방식이었다. 하지만 방송 시스템이 IP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제작, 제어, 송출 도메인은 유연한 네트워크 패브릭(Network Fabric)으로 통합된다. 이는 동시에 수많은 미디어 플로우와 제어 신호가 얹힌 복잡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 전체를 관장하는 지능형 컨트롤러를 설계한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하여 스튜디오, 중계차 등 모든 노드(Node) 간의 데이터 흐름과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정상 패턴을 인지한다. 만약 주 신호 경로(Primary Path)에서 미세한 지연이나 패킷 손실이 감지되면, AI는 단순히 예비 경로(Standby Path)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 전체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대체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 신호를 재라우팅하고 문제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엔지니어에게 알린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더는 개별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제어하는 전체 네트워크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며 방송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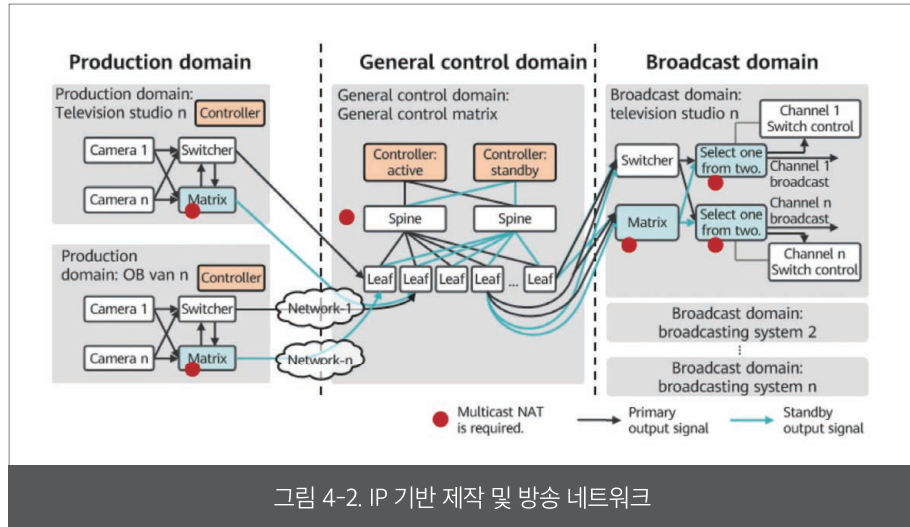


그림 4-1, 2. 전통적인 제작 및 방송 네트워크 vs IP 기반 제작 및 방송 네트워크
/ 출처 : HUAWEI 사의 IP-based Production and Broadcasting Network

시나리오 4. 경험의 융합 - AI 기반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 구축

시청자는 더 이상 정해진 화면을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Immersive Media Platform)’을 설계한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온 서비스(On-Service) AI’를 통해 가상 캐릭터나 디지털 휴먼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있다.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모션 캡처 장비에서 들어오는 배우의 움직임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제하여, 우주인이나 판타지 캐릭터 같은 가상의 아바타에 즉시 적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한다. 이때 AI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을 넘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정하거나 캐릭터의 감정에 맞는 표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가상 캐릭터의 라이브 방송이나 XR 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몰입형 콘텐츠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개별 기술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통합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 네이버의 온 서비스(On Service) AI / 출처 : 네이버 영상·XR 아우르는 몰입형 미디어 전략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AI 솔루션 아키텍트가 단순히 장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하여 방송의 제작, 시스템, 전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설계하는 ‘문제 해결자’이자 ‘혁신 설계자’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솔루션 아키텍트’로의 전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하드웨어 중심의 전문성만으로는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방송 엔지니어는 이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를 갖춘 AI 솔루션 아키텍트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역량 확보

AI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의 기본 지식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파이썬(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텐서플로우(TensorFlow), 파이토치(PyTorch) 같은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성 강화

AI 기반 방송 솔루션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미디어 서비스에 특화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능력

미래의 방송 시스템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레거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얹힌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벤더의 장비에 대한 지식을 넘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연동하고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능력이 중요해진다.

‘AI 솔루션 아키텍트’가 되기 위한 3단계 액션 플랜

하드웨어 중심의 전문성만으로는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방송 엔지니어는 이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를 갖춘 AI 솔루션 아키텍트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 생각의 전환 - ‘바이너리’에서 ‘확률’로

과거에 장비는 작동하거나(1) 고장 나거나(0)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의 AI 모델은 100% 완벽하지 않다. 95%의 정확도로 객체를 인식하고, 8%의 확률로 장애를 예측한다. 엔지니어는 이제 “왜 5%를 틀렸을까?”, “이 확률을 어떻게 9%로 높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접근 방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2단계 : 핵심 기술 스택(Tech Stack) 습득하기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 Basic(자동화 스크립팅) : Python 마스터하기

Python은 AI/머신러닝의 표준 언어이자 시스템 자동화의 필수 도구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AI 모델 개발이 아니더라도, “FFmpeg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특정 폴더의 모든 영상을 자동으로 H.264로 변환하는 스크립트”나 “주요 서버의 CPU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슬랙(Slack)으로 알림을 보내는 스크립트” 등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본다. 이것이 자동화의 첫걸음이다.

▶▶ Intermediate(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플랫폼 1개 정복하기 (AWS, Azure, GCP 중 택 1)

AI 솔루션의 90%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된다. 특히 방송/미디어 워크플로우에 특화된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 **AWS** : Elemental Media Services(미디어 변환/송출), S3(스토리지), Lambda(서버리스 컴퓨팅), Rekognition(이미지/영상 분석 AI)
- **Azure** : Media Services, Blob Storage, Functions
- **GCP** : Cloud Storage, Cloud Functions, Video AI

학습 목표는 가상 머신(VM)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로컬 스토리지의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S3)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Lambda 함수가 트리거되어 미디어 변환(Transcoding)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주는’ 아키텍처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Professional(솔루션 아키텍처 설계) : API와 데이터 구조의 기본

미래의 방송 시스템은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API로 연결해 만든다. 엔지니어는 이제 벤더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A사의 AI 자막 솔루션과 B사의 MAM 시스템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REST API의 작동 방식과 데이터 형식(JSON)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3단계 : 지금 당장 실천하기

▶▶ 나만의 ‘토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제안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무료 티어(Free Tier) 계정으로 직접 만들어 본다. NAS에 쌓여 있는 개인 동영상들을 자동 분류하는 Python 스크립트를 짜보는 것도 좋다. 직접 부딪히며 겪는 수많은 에러와 해결 과정이 최고의 학습 자료가 된다.

▶▶ 벤더에게 ‘정확한’ 질문 던지기

다음에 AI 솔루션 업체가 방문하면, “좋은 기능이네요”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이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는 무엇인가?”, “정확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API 호출당 과금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온프레미스(사내 서버) 환경에도 설치가 가능한가?”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스템의 내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여정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방송 엔지니어의 역할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하드웨어를 넘어 데이터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해 워크플로우 전체를 설계하는 AI 솔루션 아키텍트는 단순히 새로운 직무가 아니라 방송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의 모습 그 자체이다. 물론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연재는 그러한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1회차에서 제시한 답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연재를 통해 방송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AI의 핵심 개념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전략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

여정의 첫발을 뗀 지금, 우리는 변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다. 다음 2회차에서는 방송 엔지니어의 언어로 AI의 핵심 개념인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을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보겠다. 